

2020년 국립해양박물관 테마전시

Special Exhibition of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20

H u e
·
O c e a n
·
P e o p l e
·
E m p a t h y

바다와 빛,
사람에게 희망이 되다

2020. 9. 29. THU - 10. 25. SUN

국립해양박물관 2층 해양갤러리

Hue·Ocean·People·Empathy - 바다와 빛, 사람에게 희망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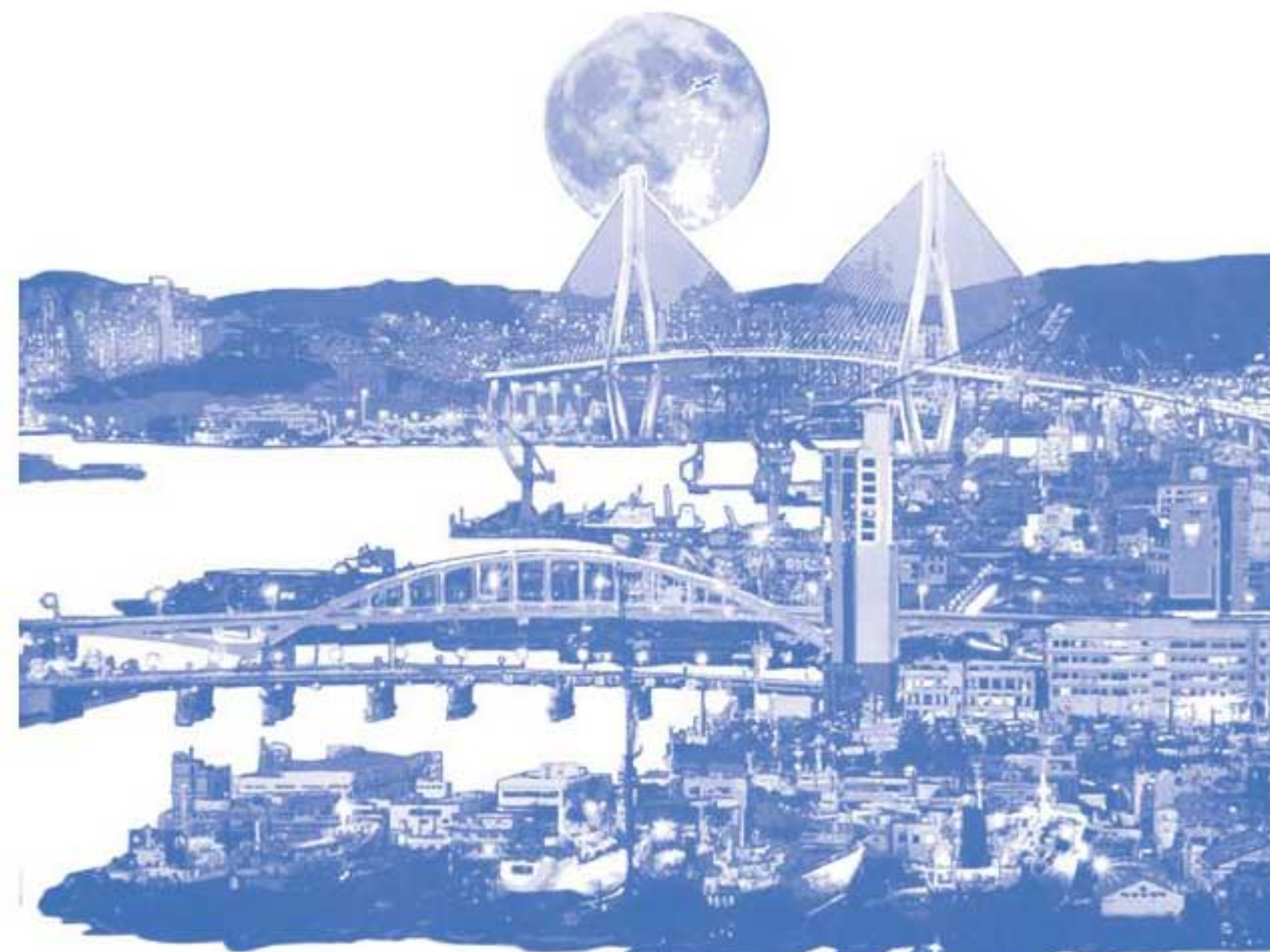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해양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 관련 현대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집할 계획이다. 해양 관련 현대미술품은 해양의 역사·문화·사회·생태·환경적 의미가 담긴 국내외 작가의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에서 바다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Hue·Ocean·People·Empathy - 바다와 빛, 사람에게 희망이 되다》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

전시는 총 5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에서는 바다를 향한 물길과 그 대상을 통해 바다의 시작을 알리고, <바다에 살다>에서는 바닷속에서 때론 자유롭고 때론 힘겨워하는 인간의 삶과 자연을, <바다, 그 아름다운 빛깔>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바다, 그 찬란한 빛과 색을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여주며, <바다를 향해가다>에서는 바다를 향해 출발을 준비하거나 바다 위를 항해하는 이미지를 통해 힘차고 새로운 시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그리고 <바다를 상상하다>에서는 바다를 매개체로 한 창작품으로 개별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이번 전시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많이 지친 이 시대에, 그럼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의 빛과 색을 통해 위안을 얻고,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⑮
'TIMESLIP', '시간이 미끄러진다는 초 자연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을 거슬러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시간 여행을 말한다.
작가는 표현하려는 장소와 소재를 촬영하여 편집하고, 이를 한지 위에 수묵화 기법 중 적묵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레이어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작가의 그림 속 달은 도달하고 싶으나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비행기는 이상향으로 도달하기 위한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을, 그리고 다리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준 그들 스스로의 개척물이자 시간의 통제에 대한 창조물이면서 동시에 평등의 표상이다.

Hue·Ocean·People·Empathy

-The Ocean and the Light: Being a H.O.P.E. for People

In order to establish a foundation to promote maritime culture, and collect and manage maritime art facts systematically,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has been collecting maritime the works modern arts since 2019, and plans to continue the works consistently. Maritime modern arts are ones having meanings connected to the history · culture · society · ecology · environment of the ocean created by artists on all over the world.

Among those meanings,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selected based on works expressing nature and the ocean, and human beings living there for this exhibition. These works will be displayed according to the themes of 《Hue·Ocean·People·Empathy - The Ocean and the Light: Being a H.O.P.E. for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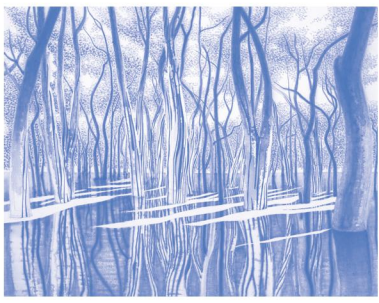
The exhibition consists of a total of five sub-themes. At <The River flows to the Ocean>, the beginning of the ocean is presented through waterways that flow towards the ocean and its objects. At <Live by the Ocean>, the nature and the lives of human beings who live by the ocean, sometimes free and sometimes struggling, is displayed. At <The Ocean, Its Beautiful Color>, the natural sea as it is, and its brilliant light and color are shown as visual beauty. At <Go Towards the Ocean>, guests will feel the invigoration and the impression of a new beginning through the images, preparing for departure towards the ocean or sailing on the ocean. In addition, at <Imagine the Ocean>, we would like to open up each guest's individual infinite possibilities by displaying creations having the ocean as an inspiration.

During the period of exhaustion from infectious disease pandemic, COVID-19, we hope this exhibition will be an opportunity to gain comfort through the never-ending beautiful light and color of the sea, and to find new hope through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the oc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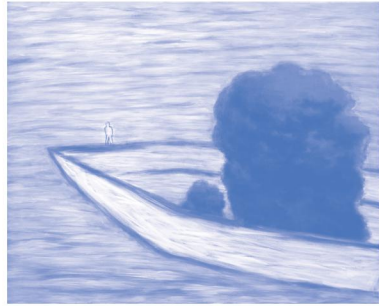


⑭
나무와 자개를 활용하여, 자연에서 오는 빛과 결을 작가만의 표현 방식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소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물성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아름다운 빛을 느낄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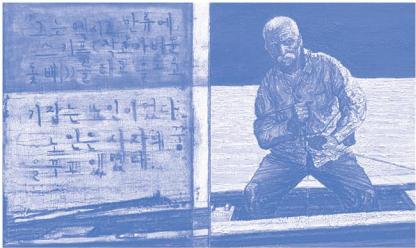
“나무는 숲의 바람소리를 그리워하고 자개는 바다의 윤슬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귀소 본능은 내 기억의 공간인 안방과 마루에 비치는 따뜻한 빛이 되어 나에게 스며온다.” - 김덕용 작가노트 중



② 맹그로브 숲은 아열대나 열대의 갯벌이나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서 발달하는 숲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 '지구의 탄소 저장소'라고도 불리는 식물군인 맹그로브로 둘러싸여 있다. 염분이 강한 맹그로브 나무는 뿌리를 통해 바다 생물에게 그 터전을 제공한다. 작가 이어운은 일 획과 비움, 채움, 번짐 등 동양화의 수묵 기법을 이용하여 맹그로브 숲을 절제된 색감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③ 배 위 검은 연기는 개인의 삶에 침투한 사회적 폭력의 흔적이며, 뱃머리에 선 작은 인물은 아픔을 해소할 곳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다. 작품에서의 바다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문명의 폐해를 보듬는 바다로 표현되었다.



④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해양소설인 '노인과 바다'를 주제로, 소설 속 서사적 풍경을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⑤ '이마퀴크(Imaquark)'라는 작가의 가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이미지(Image)와 복합소립자(Quark)의 합성어인 이마퀴크는 이미지의 최소단위를 설명하기 위해 작가가 만든 단어로, 자연의 미시세계의 추상적 개념을 미술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림은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마퀴크'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발생 과정을 보여준다. 안두진 작가는 "나는 물감을 캔버스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내 그림은 이마퀴크들의 이동들로 스스로 그림이 되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⑥ 캔버스 위에 물감을 여러 겹 칠하여 층을 만든 뒤, 이를 깎아내는 채각(彩刻)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박기훈 작가는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작품 속 동물을 통해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 문명과 자연이 공존하는 유토피아를 그린다.

Thema 1. The River flows to the Ocean

- ① A Residual Bridge, Jang Jaemin, 2015, Oil on canvas, 130×162cm
- ② Mangrove Forest_2, Lee Yuwoon, 2016, Korean ink on canvas, 112×146cm

Thema 2. Live by the Ocean

- ③ Where to Dump the Dark Clouds, Nho Wonhee, 2012, Acrylic on canvas, 130×162cm
- ④ The Old Fisherman, Santiago, Ryu Jangbok, 2019, Oil on linen, 46×76cm
- ⑤ After That Day, Kim Taegyun, 1996, Oil on canvas, 130×162cm
- ⑥ Combi-Moomoo & Parang, So Yunkyung, 2015, Conte, Acrylic on paper, 120×80cm
- ⑦ Steps for Sinking, Mackerel Safranski, 2018, Acrylic on paper, 9×15cm, 100장

Thema 3. The Ocean, Its Beautiful Color

- ⑧ Hongdo, Park Kosuk, 1978, Oil on canvas, 53×46cm
- ⑨ Face-to-face with Life, Yonggungsa Temple, Kim Seohan, 2012, Chinese ink and coloring on Korean paper, 70×130cm
- ⑩ Lee's Landscape Painting 9-10. The Entrance of Dumunjin Port, Baengnyeongdo Island, Lee Donghyup, 2015, Acrylic on linen, 97×194cm
- ⑪ LANDSCAPE, Ha Yeonsoo, 2015, Stone powder coloring on Korean paper, 65×92cm
- ⑫ Land of Silence(Oryukdo), Yu Jingoo, 2017, Mother of pearl, acrylic on panel, 80×100cm
- ⑬ The Sea of My Heart, Park Gilju, 2018, Oil on canvas, 97×194cm
- ⑭ The Grain-Homing, Kim Duckyong, 2018, Mother of pearl on wood, 122×200cm

Thema 4. Go Towards the Ocean

- ⑮ TIMESLIP-Bluehour(Busan), Lee Jihun, 2018, Coloring on Korean paper, 130×162cm
- ⑯ Memory #52, Kim Suyeon, 2014, Enamel on canvas, 97×162cm
- ⑰ Memories of Nam-hang(South Port), Yeong-do, Kim Yongdae, 1997, Watercolor, 130×162cm

Thema 5. Imagine the Ocean

- ⑱ Doong Doong, Ahn Doojin, 2017, Oil and acrylic on canvas, 61×72cm
- ⑲ Blue Sky:푸른하늘, Park Kiill, 2020, Acrylic on canvas, 112×162cm
- ⑳ Coexistence-1919, Park Kihoon, 2019, oil coloring & carving on canvas, 100×1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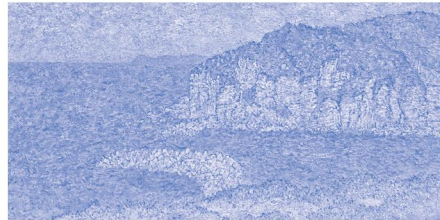


⑨ 바닷가에 자리 잡은 부산 해동용궁사를 단청색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다. 작가 김서한은 윤곽선을 그리고 색을 칠하는 구획법에서 벗어나 먹과 채색의 사이에 공간을 두어 원근법을 표현하였으며, 전통적인 단청 색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⑩ 부산 오륙도의 모습을 자개를 하나하나 붙여서 완성한 작품으로, 빛이 받는 방향에 따라 작품이 주는 느낌이 아름답다. 유진구 작가는 호수나 바다를 보면서 날씨가 바뀌는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오묘한 물빛과 색상의 변주에 심취되어 그 잔상을 발현시키는 작업을 한다.

"내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제는 서정이다. 잔잔한 호수 밑을 노니는 물고기나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바위섬들은 숨 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일 수도 있고, 실연의 아픔을 달래주는 위안의 장소일 수도 있다."
- 유진구 작가노트 중



⑩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를 여객선을 타고, 자전거로 일주하며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풍경을 현장 스케치를 거쳐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 이동협은 풍화, 퇴적된 수억 년의 자연의 모습을 수많은 붓질과 물감의 덧칠로, 화면에 쌓아 오차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그려내었다. 이는 풍경 자체의 색감과 모양을 중요시하는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투영된 모습이다.



⑱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작가 박기일은 상상 속 이미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현실을 모방하면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 혹은 이상(理想)을 그림 속에서 창조한다.

Thema 1.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 ① 잔교, 장재민, 2015,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 ② 맹그로브 숲_2, 이어운, 2016, 캔버스에 수묵, 112×146cm

Thema 2. 바다에 살다

- ③ 어디에 먹구름을 버리나, 노원희, 2012,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cm
- ④ 늙은 어부, 산티아고, 류장복, 2019, 리넨에 오일, 46×76cm
- ⑤ 그날이후, 김태균, 1996, 캔버스에 유채, 130×162cm
- ⑥ 콤비-무무와파랑, 소윤경, 2015, 종이에 콘테, 아크릴릭, 120×80cm
- ⑦ 침몰을 위한 단계들, 고등어, 2018, 종이에 아크릴릭, 9×15cm, 100장

Thema 3. 바다, 그 아름다움 빛깔

- ⑧ 홍도, 박고석, 1978, 캔버스에 유채, 53×46cm
- ⑨ 삶과의 대면-용궁사, 김서한, 2012, 한지에 먹과 채색, 70×130cm
- ⑩ 이씨산수9-10. 백령도 두무진포구 입구, 이동협, 2015, 리넨에 아크릴릭, 97×194cm
- ⑪ LANDSCAPE, 하연수, 2015, 한지에 분채, 석채, 65×92cm
- ⑫ Land of Silence(오륙도), 유진구, 2017, 판넬에 자개, 아크릴릭, 80×100cm
- ⑬ 내마음의 바다, 박길주, 2018, 캔버스에 유채, 97×194cm
- ⑭ 결-귀소, 김덕용, 2018, 나무에 자개, 122×200cm

Thema 4. 바다를 향해가다

- ⑮ TIMESLIP-Bluehour(부산), 이지훈, 2018, 한지에 채색, 130×162cm
- ⑯ Memory #52, 김수연, 2014, 캔버스에 에나멜, 97×162cm
- ⑰ 영도 남항의 추억, 김용대, 1997, 수채화, 130×162cm

Thema 5. 바다를 상상하다

- ⑱ 등등, 안두진, 2017, 캔버스에 오일 및 아크릴릭, 61×72cm
- ⑲ Blue Sky:푸른하늘, 박기일,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112×162cm
- ⑳ 공존(共存)-1919, 박기훈, 2019, 캔버스 위에 채각(彩刻), 100×135cm

